

‘더현대 광주·신세계백 확장’ 복합쇼핑몰 건립 속도 낸다

신세계, 터미널 복합화 제안서 제출
호텔·오피스텔 통합 객실 200실로 ↓
백화점·주거시설 규모 기존과 동일
羨시장 “올해 안 사전 협상 마무리”
북구, ‘더현대’ 건축허가 조건부 승인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신세계가 18일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을 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고, 광주 북구도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의 첫 번째 복합쇼핑몰이 될 ‘더현대 광주’의 건축 허가가 오는 최종 승인돼 착공만 남겨두고 있다”며 “신세계도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을 위한 협상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터미널 복합화사업과 관련, 강 시장은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은 백화점·특급호텔·문화시설 등이 복합화된 문화·관광자원 ‘그레이트 시티 광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레이트 시티 광천”은 도시 이용인구 증가에서 관광객 유입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까지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이르는 등 ‘신속·공정·투명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 8개월 만인 이날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구 광천동 49-1번지 일원 약 10만㎡ 부



개발 기다리는 방직공장 터
광주 북구가 18일 교통문제 개선 등 4개 이행 조건을 달아 지역 내 첫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은 ‘더현대 광주’ 조성 예정 부지인 북구 임동 옛 방직공장 터 전경. /김애리 기자

지에 총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은 지하 7층, 지상 47층까지 들어선다. 기존 여객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에는 백화점 신관과 호텔, 문화·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며 다기능 복합도시 플랫폼이 마련된다.

이날 제출된 제안서는 신세계가 지난해 제시한 개발계획 검토 신청서와 비교할 때 일부 사업 계획이 조정됐다.

당초 호텔 1동, 오피스텔(업무시설) 1동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호텔과 오피스텔을 1동으

로 통합해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호텔 객실은 기존 200실 규모에서 200실로 축소했다.

백화점과 주거복합시설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다. 백화점 24만8천949㎡, 주거복합시설 16만4천28㎡(516세대) 규모다.

앞서 광주시와 신세계는 주거복합시설 면적 문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변동 없이 기존 안대로 접수됐다. 전체 건축 연면적은 108만2천542㎡에서 81만4천675㎡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조정된 제안서에는 8만2천645㎡ 규모의 웰니스복합시설이 추가됐다. 의료, 복지, 돌봄 서

비스가 원스톱 제공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조4천63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공공기여금 규모도 98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감소했다.

강 시장은 “공공기여금은 토지 감점평가 등 협상을 통해 조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사전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 북구는 이날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2

월28일 접수 이후 110일 만이다.

더현대 광주는 북구 임동 옛 일신·전남방직공장 터 3만2천341㎡(높이 81.9m·길이 214m·폭 111m)에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3천85㎡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의 약 1.5배 규모로 쇼핑·문화·여가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의 신청 접수 후 북구는 더현대 광주 건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통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광천구역 일대에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 하루 교통량이 최대 28만대까지 늘어나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대신 4개 이행 조건을 달았다.

모두 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프로야구 경기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복합쇼핑몰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확보 및 소음·먼지·진동 피해 최소화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광주천 친수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연계 주변 경관·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광주시에 특단의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 안에서 인허가 요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법적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인허가는 단순한 행정 행위를 넘어 광주의 미래와 시민 삶에 직결되는 무거운 고민을 동반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안재영 기자

이재명 정부, 전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당정, 1·2차 추경35조 ‘가닥’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

보편 지원+취약계층 추가 지원

‘인구소멸지역’ 주민 지원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

자와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히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응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재해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엔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연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원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